



손 정 태 | 밀양문화원 이사
(susanje1@hanmail.net)

밀양 청도천 (淸道川:일명,내진천)의 어제

태백산맥의 제2맥이 남으로 뻗어내려 오다 경북과 경남의 경계선상에 이르러 화악산(華嶽山)을 이루는데 이것이 곧 밀양의 진산(鎭山)이다. 동쪽으로는 실혜(實惠), 재약(載藥), 천태(天台), 만어(萬魚)의 여러 산들을 겹겹이 이루었고, 서쪽으로는 도리산(道理山)과 태봉(台峰)이 솟았으며, 남쪽에는 종남(終南), 덕대(德大)의 여러 산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낙동강이 북으로부터 흘러와 밀양시의 서쪽을 적시면서 초동, 하남, 삼랑진의 서쪽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 흐르는데, 현풍 비슬산과 청도 운문산에서 발원한 북천수(北川水)와 실혜산과 재약산에서 발원한 동천수(東川水)가 각각 북쪽과 동쪽에서 흘러내려와 합하여 남천강(南川江: 일명 凝川)이 되어 밀양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흘러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화악산에서 발원한 청도천(淸道川: 일명 來進川)도 서남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1. 청도천의 현황과 흔적

1.1 청도천의 현황

화악산에서 발원하는 청도천은 밀양시 청도면과 무안면의 동·서 산지에서 발원하는 소지류가 합류하여 무안분지의 중

앙부를 따라 흐르며 양안에 비옥한 평야지대를 만들고, 초동면과 부곡면의 경계를 따라 흘러서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총연장이 약 25km에 달하는 하천을 일컫는다. 본래의 이름은 내진천이라 불렀지만 1912년에 경북 청도군 외서면에서 경남 밀양군 청도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하천의 명칭도 청도천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밀양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청도면은 천왕산(天王山: 619m)에서 화악산(華嶽山: 932m)에 이르는 능선을 경계로 하여 경북 청도군과 도계를 이루고, 창녕군과는 군계를 이루는데, 청도면은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남쪽으로만 열려 있으며 24번 국도가 면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창녕군으로 통한다.

천왕산 아래에 소태(小台), 두곡(杜谷), 구기(九奇), 조천(槽川), 인산리(仁山里) 등 5개리와 화악산 아래쪽에 고법리(古法里)와 요고리(要古里) 등 2개리를 합해서 7개의 법정리와 12개의 행정리동을 갖추고 있는 청도면의 여러 산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모여 청도면과 무안면의 경계지점인 가막수마을 아래 오연교 밑에서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하천 폭이 넓어지며 무안면 지역으로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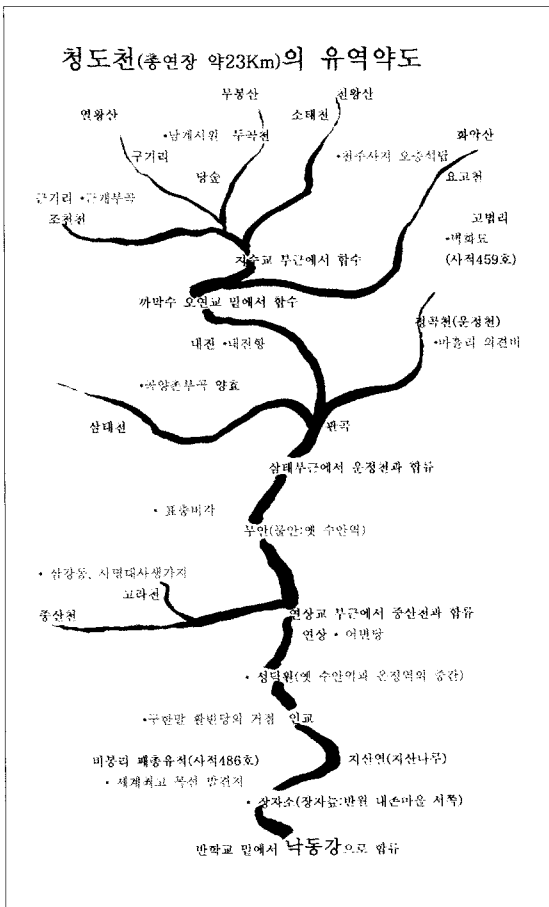
무안면에서는 운정천(雲汀川)과 삼태천(三台川)이 삼태리

입구에서 다시 청도천을 만나고, 연상리 입구에서 중산천(中山川)이 마지막으로 청도천과 만나 초동면 지역을 흐르면서 하천 주위로 비옥한 평야를 일구어 놓고 낙동강 본류로 합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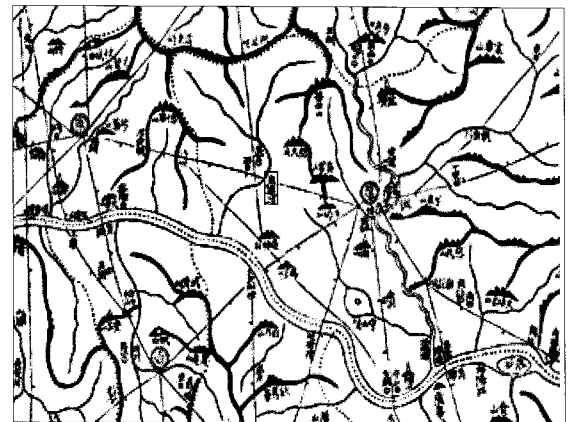
무안은 본래 밀양군 하서면 지역으로서 옛 지명은 수안역리(水安驛里)였다.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역이 형성되어 발달한 것 같다. 고려사(高麗史) 병지역참조에 금주도(金州道-金海) 관내에 있는 역 중에서 '밀성군(密城郡)에는 무휼, 영안, 용가, 병산 등 4개의 역이 있었는데, 그중 영안역이 조선 시대에 수안역이 되었다. 이는 남쪽으로 양동역까지 30리, 서쪽으로 창녕군 부곡 은정역까지 30리, 동으로 용가역까지 30리, 북으로 유산역(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까지 50리로서 경상좌도의 요지였다'고 적고 있다.

그 후 물안(혹자는 인교 부근에 있는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를 "물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안 등으로 지명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밀양, 창녕, 청도면으로 가는 길이 서로 교차되는 교통 요로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청도천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옛부터 홍수 때마다 낙동강에서 비붕, 인교, 강동 쪽으로 물이 밀려 올라와 범람하기 때문에 "물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옛날부터 소금배가 표충비각이 있는 현 무안면사무소 앞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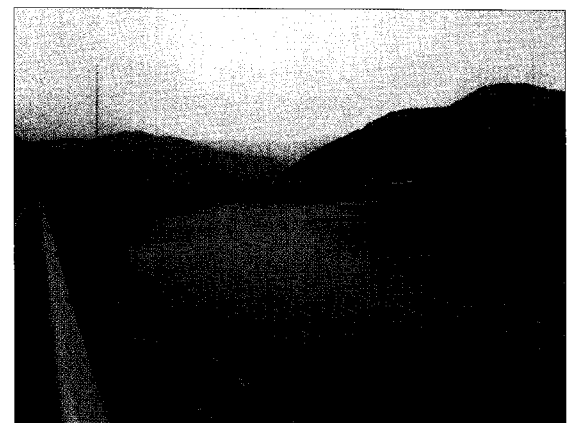
초동면과 부곡면 경계를 흐르는 청도천은 인교(因橋)를 지나 낙동강으로 합류하기 중간쯤인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에서 8,000년 전에 목선을 만들고 이용했던 옛사람들의 흔적을 남기면서 하천습지인 장지늪을 감돌아 낙동강 본류로 합류하게 된다.



(그림 1) 청도천 유역 약도



(그림 2) 대동여지도에 보이는 청도천(옛 이름은 來進川)의 모습



(그림 3) 중산천과 청도천의 합류지점(연상리)

1.2 청도천의 흔적

가. 지석묘와 고분군

청도천을 따라 옛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지석묘군은 청도면의 인산리(仁山里)와 무안면의 내진리(來進里), 삼태리(三台里), 연상리(淵上里)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인산리와 내진리 지역은 청도천을 따라 거의 나란히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으나 그 보존상태는 너무나 엉망이고, 특히 청도중학교 주위 길가에 있는 지석묘는 흙에 묻힌데다, 그 위에 기름탱크를 올려놓아 지석묘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그림 4) 인산리 지석묘

무안면 신법리(新法里)와 판곡리(板谷里)의 석관묘, 청도면 구기리(九奇里)와 두곡리(杜谷里)의 경계지점에 있는 고려장터와 소태리(小台里) 우와등(牛臥嶺), 고법리에서 4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대형 횡혈식 석실분과 소형 고분이 밀집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굴되어 유적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다.

특기할 사항은 1999년 9월 청도면 고법리에서 고려 말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인 송은 박익 선생의 벽화묘가 발견되었는데, 이 벽화묘는 세종 2년(1420년)에 축조된 것으로서, 태풍으로 침하된 봉분을 보수하는 과정에 지석(誌石), 유물과 함께 발굴되었다. 봉분의 규모는 가로 605cm, 세로 482cm, 높이 230cm의 이 고려식 방형묘(方形廟)는 사적 제459호로 지정되었다.

나. 향(鄕)과 부곡(部曲)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는 향(鄕)·소(所)·부곡(部曲)이라는 특수한 지방 하급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청도천변에도 내진리(來進里)의 내진향(來進鄕)을 비롯해서 구기리와 조천리의 중간에 있는 근기리(近奇里)의 근개부곡(近皆部曲), 양효리(良孝里)의 곡량촌부곡(谷良村部曲) 등이 있었다.

본래 향·소·부곡이 만들어진 과정은 국가간의 정복전쟁에 패배하였거나 투항 또는 귀순한 사람들의 집단지나 반역죄인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의 집단 부락, 기타 특수한 생산노비의 집단거주지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의 부곡과 향은 주로 농업생산에 치중하는 집단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이러한 천민촌이 지역적으로는 경상, 전라, 충청, 경기 순으로 많았고, 특히 남부지역은 우리나라 전체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217개소나 되던 신라의 부곡은 향들과 같이 군현제(郡縣制)가 성립된 이후인 8~9세기경에 설치된 것이라면, 고려의 부곡은 후삼국의 통일전쟁 과정에서 끝내지 않았던 지역들을 군현제의 하부기구에 예속시켜 편성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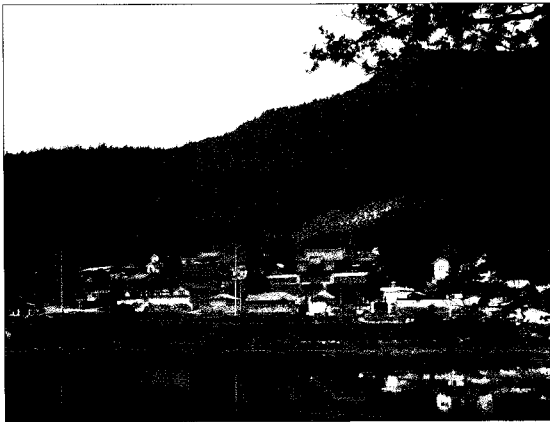
고려말기까지는 향이 138개소, 소가 241개소, 부곡이 406개소 등 모두 785개소나 되던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보면 조선 초기에는 13개의 향·소·부곡만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15세기에 들어와서는 행정구획의 정리로 대부분이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소속군·현에 흡수되어 완전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도천 주변에 있었던 곡량촌부곡이나, 근개부곡, 내진향 등도 이 시기에 소속군·현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고려중기 무인시대(武人時代) 밀양에는 18곳의 천민촌(賤民村)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다. 성덕원(城德院)과 인교(因橋)

밀주구지(密州舊誌 : 17세기 작성)에 의하면 '밀양부의 서쪽 삼십오리에 성덕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는 기록

(표 1) 고려 중기 밀양의 천민촌내역

구분	고려 중기 지명	현재의 지명 또는 위치	비고
부곡(部曲) 14곳	모산(牟山)	상남면 세천리	
	천산(穿山)	하남읍 수산리	
	두야보(豆也保)	청도군 풍각면 道連(도연)	당시는 밀양현 소속이었음
	이동음(伊冬音)	상남면 연금리	
	금음물(今音勿)	삼랑진 임천~용전	
	저대(楮代)	부북면 춘화리	
	오정(烏丁)	부북면 오례리	
	평능(平陵)	상동면 금산리	
	고매(古買)	청도군 풍각면 東村(동촌)	당시는 밀양현 소속이었음
	곡량촌(谷良村)	무안면 양호리	무안(청도천 유역)
	파서방(破西防)	하남읍 파서리	
	근개(近皆)	청도면 근거리	청도(청도천 유역)
	양량(陽良)	부북면 위양리	
	구지산(仇知山)	달성군 구지면 창리	당시는 밀양현 소속이었음
향(鄕) 3곳	내진향(來進鄕)	무안면 내진리(通駕)	무안(청도천 유역)
	운막향(雲幕鄕)	상남면 동산리(배죽:白足)	
	신포향(薪浦鄕)	부북면 전사포리(銀浦)	
소(所) 1곳	음곡소(陰谷所)	초동면 외지리	



(그림 5) 내진향(무안면 내진리)



(그림 6) 곡량촌부곡(무안면 양호리)

으로 보아 현재 무안면 강서리 성덕원은 수안역(밀양 무안) 과 온정역(창녕 부곡)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터가 있던 자리는 성덕원 마을 입구 오른쪽, 동북편 산모퉁이에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곳이고, 마을 앞쪽에 있었던 몇 가구의 인가를 일컬어 원터거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논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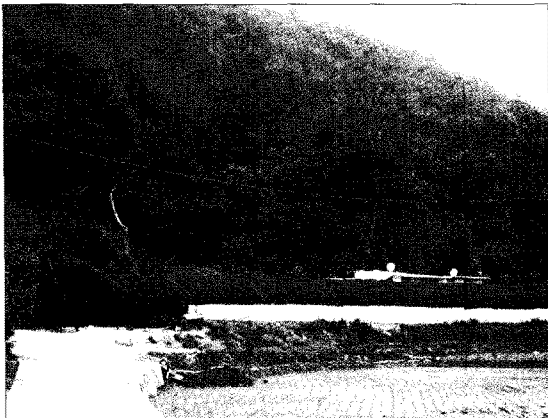
성덕원 마을 뒷산 골짜기를 내곡이라고 부르고, 부곡면과

경계를 이루는 이산 정상에 부북면 수다리로 넘어가는 땅고개가 있었다. 땅고개 정상에 있는 바위를 “도둑바위”라고 부르는데, 그 바위 아래쪽에 동굴이 있어 도둑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성덕원 남쪽에는 마을 동쪽의 청도천에 인교라는 교량이 있어서 마을 이름도 인교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일부는 밀양시 무안면에, 또 일부는 창녕군 부곡면에 소속되어 있어 옛부터 밀양, 창녕간의 교통 요로 및 관도로서 큰 역

할을 했는데, 옛날 나무를 지게 같이 엮어 다리를 놓았다고 하여 '지게 다리'라고 하다가 '지이다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전날의 '지이다리' 위치는 지금의 교량 위쪽에 있었고, 큰 돌로 만든 징검다리였는데, 제방을 새로 쌓고 콘크리트로 다리를 놓을 때 솟대와 함께 없어졌다고 한다. 구한말 때는 이곳이 활빈당의 거점으로 말술(두주-斗酒)을 받아 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먹여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까지 나눠주었기 때문에 관군이 이들을 체포하려고 해도 이곳에 있었던 '솟대' 안으로 숨거나 인근 주민들의 비협조로 소탕할 수가 없었다고 하여 지금도 "지이다리 도둑 꿀듯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의 거처가 성덕원의 땅고개 동굴이었던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림 7) 성덕원 원터(현 성덕리 강서마을 북동쪽 소나무 두 그루가 서있는 곳이 성덕원터이다)



(그림 8) 인교와 청도천(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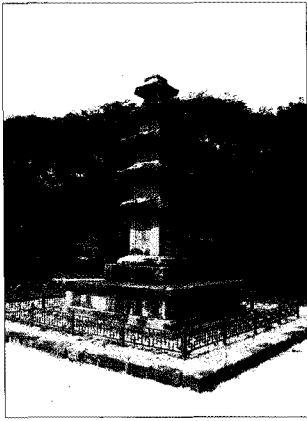
2. 청도천 주변의 문화유적

2.1 소태리 오층석탑(小台里 五層石塔)

천왕산과 화악산 사이에 서남으로 뻗어내린 호암산(虎岩山)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 온 소태리의 천주산(天柱山)의 아래쪽에 고찰이 있었는데, 이 절의 이름을 천주사(天柱寺), 혹은 천축사(天竺寺), 죽암사(竹岩寺) 등으로 불리어졌다고 전하고 있으나 정확한 절이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곳에 오층 석탑이 있는데, 보물 제312호로 지정되어 있는 높이가 5.57m의 이 오층탑은 전형적인 방형탑(方形塔)과는 달리 단층이면서 이형(異形)의 기단을 갖고 있다. 기단은 4매의 장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면에는 안상(眼象)이 2구씩 음각되어 있고, 윗면에는 1단의 턱을 두어 갑형(甲形)으로 처리하였다. 낮은 기단부 윗면에는 별석으로 탑신 받침이 놓여 있는데, 층단을 이루고 있으며, 윗 단은 낙수면(落水面)처럼 경사져 있다.

탑신부의 첫째층 옥신(屋身)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반면 다른 옥신과 옥개석은 한 돌로 구성되어 있다. 옥신은 첫째층 옥신만이 유난히 높을 뿐 2층 이상은 비교적 체감률이 적은 편이다. 옥신석에는 모퉁이 기둥(隅柱)만이 본떠서 새겼을(模刻) 뿐 다른 장식을 새긴 것(彫飾)은 없다. 옥개석은 아래에 각 층 모두 3단씩의 받침을 두고 있으며, 낙수면은 비교적 경사가 급한데 전각(轉角)에서 경쾌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옥개의 합각부(合角部)에는 풍경(風磬)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연변문(蓮瓣文)이 둘러져 있어 특색을 이루고 있다.

1919년 3월에 이 탑의 상륜부에서 가로 60cm, 세로 40cm의 백지에 반조서로 묵서한 "당탑조성기(堂塔造成記)"가 발견된 바 있는데, 이 두문자(吏讀文字: 傍點)를 혼용한 문장 형태를 미루어 보아 작성한 연대가 건통 9년인 요(遼)나라 천조제(天祚帝)의 연호를 써서 고려 예종 4년(1109년)에 해당되고, 이 해에서 206년전, 즉 신라 해공왕 8년(新龍 2년)에 황룡사의 사문 해조가 이 절의 주지로 있었다는 것과 또 황룡사에 있던 중대사 학선이 8년전에 이 절의 주지로 와서 예종 2년(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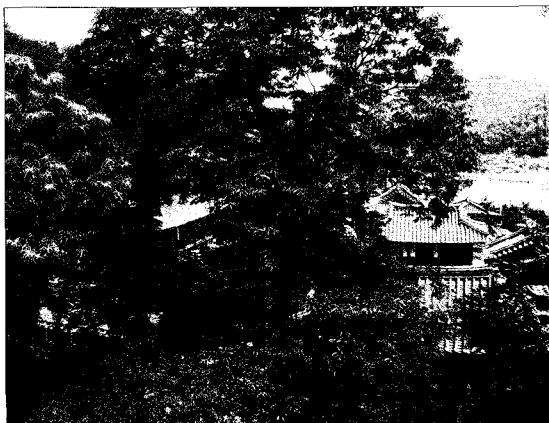
〈그림 9〉 소테리 오층석탑

亥: 1107년 정월에 발심하여 금당 1칸과 불좌를 만들고 5층 석탑을 세웠는데, 구리와 놋쇠를 아울러 62근을 사용하였으며, 향로와 향합 등 절에 들인 물품과 재료의 사용량을 적고, 불사에 참여한 주지 이하 스님들의 법계와 범명을 열기했다.

2.2 남계서원(南溪書院)

청도전 상류 천왕산 아랫마을 두곡리에는 고려 중기에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영헌공(英憲公) 김지대(金之岱)의 충효쌍수(忠孝雙修)의 위업을 받들기 위해서 1704년(숙종 30년)에 사림의 공의로 건립된 남계서원이 있다.

이 서원의 쌍수당(雙修堂)은 김지대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증군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며, 뜻은 “충과 효를 함께 닦을 수 있다(忠孝可雙修)”라고 한데서 붙여진 것이다. 1868년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어 버렸던 것을 청도김씨 후손들이 1907년(순종1)에 그 유지에 쌍수당을 중건하여 보존하고 있다가 1991년도에 충렬사(忠孝祠)를 중건하면서 다시 남계서원으로 복원하였다. 건물은 묘우(廟宇), 신문(神門), 강당인 쌍수당, 동재인 원청재(元淸齋)와 서재



〈그림 10〉 남계서원

인 강의재(岡毅齋), 정문인 숭덕문(崇德門)을 비롯해서 두은(杜隱) 김해동(金海東)의 담망소(瞻望所)로 건립된 보망재(步望齋)가 함께 보존되고 있다.

2.3 송은 박익(松隱 朴翊)선생의 벽화묘

청도면 고법리 산134번지에 있는 이 벽화묘는 송은 박익 선생의 묘이다. 선생은 1332년 밀양 사포리에서 출생, 자(字)는 태시(太始), 호(號)는 송은, 시호(諡號)는 충숙(忠肅), 본관은 밀성(密城)이다. 선생은 공민왕조에 등과하여 벼슬이 정경(正卿)에 올랐고, 여러 번 왜구와 여진을 토벌하여 전공을 세웠으며, 고려말 포은, 목은, 야은 등과 함께 8은(八隱)으로 일컬어지는 충절신(忠節臣)이다. 이태조 등극 후 1395년 공조, 예조, 형조, 이조, 좌의정 등의 직을 맡기 위하여 다섯 차례나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이 벽화묘는 세종 2년(1420년)에 축조된 것으로서, 1999년 9월 태풍으로 침하된 봉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식(誌石), 유물과 함께 조선시대 벽화묘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굴된 채색 벽화묘이다. 봉분의 규모는 가로 605cm, 세로 482cm, 높이 230cm의 고려식 방형묘(方形廟)이다. 석실(石室)은 봉분 정상부에서 410cm 깊이에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남북으로 장방형 토갱(土坑)을 설치, 그 속에 토갱을 따라 화강암 판석을 길이 235cm, 높이 80cm, 폭 90cm의 장방형 석실을 조립한 뒤 먼저 판석 내면을 석회로 도장(塗裝)하고, 그 위에 채색벽화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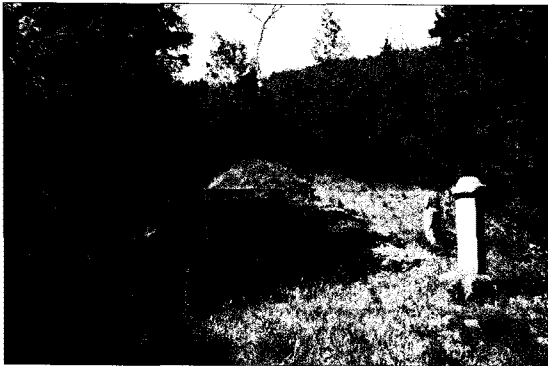
이 벽화묘의 특징은 그 시대에 흔히 그려진 일반적인 벽



〈그림 11〉 남계서원의 쌍수당

화와는 달리 인물, 도구, 말 등의 생활풍속도와 장벽(長壁) 양쪽 가장자리에 매죽(梅竹) 그림을 배치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벽화내용 가운데 양쪽 장벽 그림속 인물들이 4인 1조를 이루면서 피장자의 두향(頭向)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남서 단벽(單壁)의 그림은 모두 상호 대칭관계의 구도로 그려져 있다.

이 벽화묘에 그려진 매죽은 고려 태조 왕건릉(王建陵)의 사신도(四神圖)와 함께 인물풍속도에서 세한삼우(歲寒三友)가 교대해서 그려진 것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벽화로서 고려말 조선초 벽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림 12〉 송은 박의 선생의 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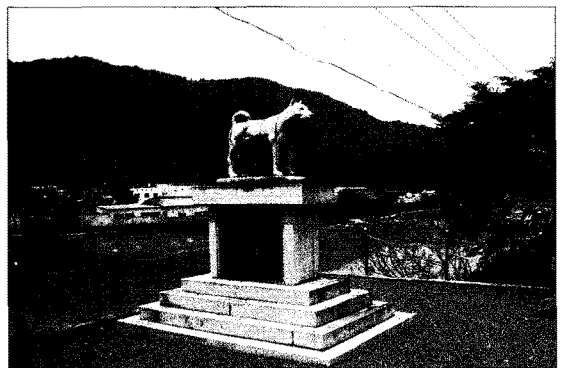
〈그림 13〉 송은 선생 묘소의 벽화부분

2.4 개고개와 의견상(義犬像)

운정천의 상류 마흘리 점동에서 지정으로 넘어 가는 개고개의 정상에서 있었던 돌비석으로, 원래는 도로 위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신생동 입구에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약 300여년 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데, 비문에 “연리 허초벽염결

비 기유삼월립(椽吏許楚璧焰潔碑 己酉三月立)”이라 새겨져 있다. 약 300여 년전 연리(椽吏, 돈은 거두는 아전) 허초벽(許楚璧)이 돈을 거둬 오다가 잔치집에 들려 술이 잔뜩 취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평소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동물을 무척 사랑했는데, 이 날도 개를 데리고 나갔다가 술이 취해 이 고개 정상쯤에 와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 때 갑자기 산불이 나서 허초벽이 잠자는 자리까지 번지게 되었다. 주인 곁에 앉아 있던 개는 주인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 주인을 깨웠지만, 주인은 취한 나머지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 개는 즉시 위급한 상황을 판단하여 아래쪽 웅덩이로 가서 온 몸에 물을 적혀 불타는 자리에 와서 뒹굴곤 하여 불을 껐다. 그렇게 하여 불은 겨우 껐지만, 그 개는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한참 후 잠이 깬 허초벽은 개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개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를 가상히 여긴 주민들이 의구비(義狗碑)를 세웠다고 하며 이로 말미암아 개고개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1998년도에 독지가의 도움으로 의견상을 만들어 신생동 입구에 세워 놓고 충직스런 개 한 마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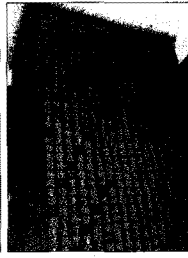
〈그림 14〉 마흘리 신생동의 의견상

2.5 땀 흘리는 표충비(表忠碑)

무안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표충비는 영조18년(1742년) 10월에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을 이끌고 왜병을 크게 무찔렀고, 종전 후에는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건너가 전쟁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환국시킨 사명대사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대사의 5대 법손인 태허당(泰虛堂) 남



〈그림 15〉 표충비각



〈그림 16〉 땀 흘리는
표충비(일부)

봉선사(南鵬禪師)가 경북 경산(慶山)에서 돌을 채취(伐石)해와 현재의 자리에 세운 것으로 좌대를 포함한 총높이는 380cm, 비신의 높이 275cm, 너비 98cm, 두께 56cm의 거대하고 장중한 오석비(烏石碑)이다.

비석의 정면에는 “유명조선국밀양표충사송운대사영당비명병서(有明朝鮮國密陽表忠祠松雲大師靈堂碑銘並書)를 새기고, 뒷면과 옆면에는 ”서산대사비명(西山大師碑銘)과 ”표충사사적기(表忠祠事蹟記)“를 음각하였는데, 정면에 새긴 비문의 내용은 사명대사 임유정 스님이 무안면 고평리에서 아버지 임수성(任守成)과 어머니 달성서씨(達成徐氏) 사이에서 태어나서 67세로 일생을 마감하기까지 54년에 걸친 승려생활을 하신 행적과 함께 임진(壬辰), 정유왜란(丁酉倭亂) 때에 빛나는 구국의 충렬을 찬양한 것으로 영조때 상신(相臣)인 도곡 이의현(陶谷 李宜顯)이 글을 짓고, 퇴어 김진상(退漁 金鎭商)이 글씨를 썼으며, 영상을 지낸 지수제 유척기(知守齊 兪拓基)가 전액(篆額)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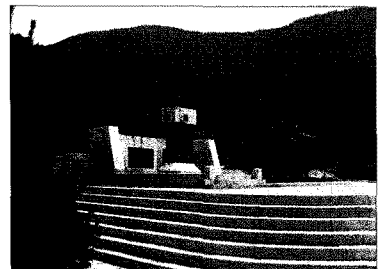
이 비석은 일명 “땀 흘리는 비(汗碑)”라고도 하여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전쟁 등 변란의 징후가 있을 때 비면에 자연적으로 땀방울이 맺혀서 마치 구슬땀처럼 흐르는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나라와 겨레를 염려하는 사명대사의 영험(靈驗)이라고 하여 신성시하고 있다.



〈그림 17〉 중산마을 입구에 서있는 삼강문 석비



〈그림 18〉 사명대사 기념관



〈그림 19〉 사명대사 생가지

2.6 삼강동(三綱洞)과 사명당(泗溟堂) 생가지

무안면 중산리 일대에서부터 그 안쪽에 있는 부락 전체를 일컬어 삼강동이라 부른다. 이는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내암 정인홍의 중군장으로 낙동강지역 전투에 참가하여 커다란 전공을 세우고 순국한 서가정 출신의 후지당(後知堂) 손인갑(孫仁甲)과 그의 아버지를 따라 전사한 아들 손약해(孫若海), 그리고, 동래교수 노개방(盧蓋邦)과 자진(自盡)한 그의 부인 여주이씨(驪州李氏), 고라리 출신의 의승병대장(義僧兵 大將) 사명당 임유정(任惟政) 스님 등이 이곳에서 충신, 효자, 정열부가 5위나 배출되어 삼강을 빛낸 곳이라고 하여 고라리, 아치실, 서가정 마을을 통틀어 삼강동이라 불렀고, 이 부근의 들판을 충절들, 또는 충렬목들이라 하며, 이런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밀양에만 있는 지명이다.

근대에까지 중산리로 들어오는 동구의 산길 바위에 『삼강문(三綱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돌에 “삼강문”이란 글씨를 새겨 강상을 기리는 뜻을 다시 밝혔다. 최근에는 고라리에 사명대사의 생가지와 기념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2.7 어변당(漁變堂)과 박곤(朴坤)

연상리 394번지에 있는 어변당은 조선초기의 장수였던 박곤이 무예와 학문을 닦던 곳이다. 그는 밀성박씨 태사공파(太師公派) 박언부(朴彦孚)의 11대손으로 연상리에 이주해온 박의번(朴義蕃)의 둘째 아들로 고려 공양왕 3년(1319년)에 태어났다. 무과에 응시하여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를 두루 거쳐 21세에 장원급제 하였고, 세종 1년 최윤덕(崔潤德)장군의 막하(幕下)로서 대마도 정벌 및 남해 왜구를 토벌

하였고, 34세인 세종 11년 순문사(巡問使)로 북방의 성(城)들을 살피고 국방정책의 입안에 참여하였다. 그후 공조(工曹), 호조(戶曹), 예조참판(禮曹參判) 및 한성판윤(漢城判尹) 등을 거쳤고, 특히 축성을 맡거나 진지(陣地)를 심사하고 국방의 자문에 치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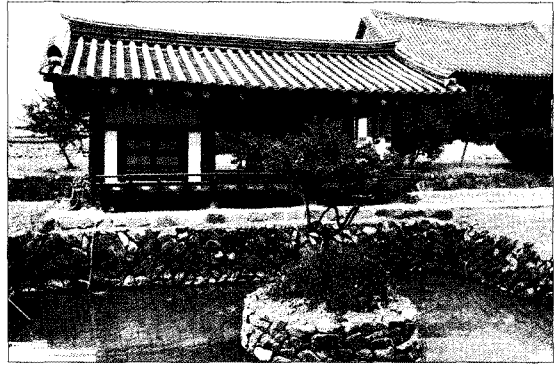
세종 18년(1436년) 명나라 영종(英宗)의 즉위시에 하례사(賀禮使)로 갔다가 황제가 그의 사람됨을 보고 벼슬을 내렸을 때 거절하였는데, 대신에 미인 3인을 얻어 그곳에서 일걸(一傑), 이걸(二傑), 삼걸(三傑) 등 세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표(瓢)씨의 성을 얻어 중국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귀국 후에 한성판윤을 지냈으며 40대 중반부터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 연못 앞에 어변당을 짓고 여기에서 여생을 마쳤다.

어변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서 별당채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은 박곤이 중국에서 돌아온 1440년 경에 건축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1841년에 다시 중수하였는데 이호윤(李顯濶)이 쓴 그때의 중수기(重修記)를 편역(編譯)에 기록하고 있다. 배치는 앞에 방지(方池)를 두고 그쪽에 맞추어 3칸의 어변당이 서향(西向)하여 있고, 그 앞에 박곤이 심었다는 500년 수령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역사를 말해주며 서있다.

평면은 2칸 대청과 온돌방 1칸을 두었는데 대청의 남쪽을 개방하여 측면 진입을 만들었고, 전후로는 뒷마루를 두었는데 앞에만 계자각난간(鷄子脚欄干)을 하였다. 기둥은 전부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민도리의 3량(樑) 맞배구조의 연등천장을 하고 있다. 현재는 주위의 영역이 정화되어, 중앙에 충효사(忠孝祠)가 들어서 있으며, 그 오른쪽에 유물관(遺物館)이 있고, 왼쪽에 어변당이 있는 배치 형태이다.



(그림 20) 어변당 당호 편액



(그림 21) 어변당과 적룡지

2.8 비봉패총 세계최고 목선 출토

현재 행정구역은 장녕군 부곡면이지만 청도천변에 속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봉리 신석기 패총유적은 2003년 태풍 때마다 완전 침수가 되었던 지역으로 장녕군이 이곳에서 양배수장 건설공사를 하던 와중에, 무려 8천년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시대 초창기 통나무배가 기적적으로 발굴된 바 있어서 사적 제486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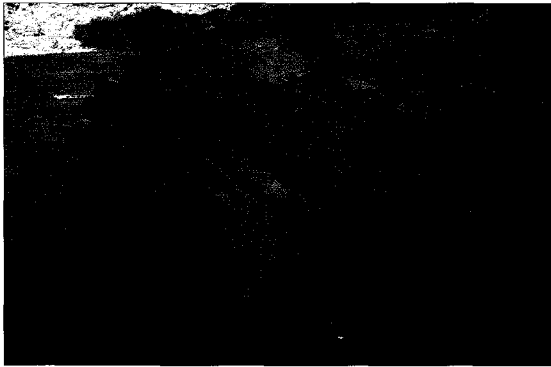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한 연대측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배가 확인된 지점이 신석기 초창기문화층 위로 해수면보다 2.0m 가량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며, 이 연대가 확실하다면 이는 이집트 쿠푸왕 피라미드 고선박보다 3,400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배로 알려진 도리하마(鳥浜) 1호나 이키리키(伊木力) 유적 출토품보다 무려 2천 년 이상을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 선박은 비봉리 유적 중에서도 제2피트 제5 패총(貝塚) 아래서 출토되었는데, 배는 발견 당시 동서방향으로 놓여있었고, 청도천쪽을 향해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이 배는 최대길이 3m 10cm, 최대폭 60cm, 두께 2.0-5.0cm, 깊이 약 20cm가 된다. 양끝 중 어다가 선수부(船首:뱃머리)이며 선미 부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는 동쪽 부분이 선수가 아널까 추정하고 있는데, U자형으로 통나무를 파내 만든 소위 환목선(環木船)에 속하고, 선체는 고르게 가공돼 있으나 선수부가 약간 두꺼운 모양이다.

배를 만들기 위해 당시 사람들은 통나무를 군데군데 불에



(그림 22) 청도천과 비봉리 패총유지



(그림 23) 비봉리 패총에서 출토된 목선



(그림 24) 비봉리 패총의 목선 발굴 광경



(그림 25) 장자늪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

태운 다음 돌자귀 같은 날카로운 석기를 이용해 깎아내고, 다시 갈돌과 같은 기구로 표면을 정리하는 방식을 구사했음이 드러났는데, 철기나 청동기 같은 금속기가 발명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치밀하게 가공한 흔적이 역력하며 배를 제작하는 데 쓰인 나무는 소나무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이전 선박 실물로는 경주 안압지 출토 통일신라시대 배(8세기), 완도선과 십이동 파도선(11세기), 안좌도선(13~14세기), 달리도선(14세기) 등이 있으나 모두 역사시대에 속하고 있다. 하지만 비봉리 유적 출

토 배는 선사시대 유물로서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선박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2.9 장자소(長者沼·장자늪)

장자늪은 일명 장자못이라고도 불리며 반월리 내촌마을 서남쪽을 흐르던 청도천과 낙동강이 만나기 전에 있던 하천 습지의 하나이지만, 근대에 와서 청도천에 제방을 축조하면서 거의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 위에 반월과 학포를 이어주는 반학교(半鶴橋)까지 설치되면서 본래의 늪(沼) 모양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버렸다.

습지의 자정작용에 의해 상류의 축산농가에서 흘러내리는 축산폐수나 농약 잔유물 등으로부터 수질을 개선시켜 낙동강으로 유입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도 개발이 우선한 폐해로 환경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버리고, 습지의 자정역할마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 장자늪에 얽힌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이곳에는 장자인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인정이 없어서 이웃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 남을 도울 줄 몰랐다. 어느날 스님 한 분이 부자를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그러자 머슴을 시켜 거름을 한 삽 떠오게 하여 스님의 시주그릇에 담아주고는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이 광경을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가 몰래 물 길러 가는 척


하고 물둥이에 쌀을 담아 가지고 나와서 대문 밖에서 있는 스님에게 가서 시아버지의 잘못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스님의 시주 그릇에 쌀을 넣어 주었다. 그러자 스님은 장자의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이 길로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뒷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여,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며느리가 뒷산 중턱에 올라 갈 즈음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 같았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 순간에 돌이 되어 버렸고 그 부자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반달 같은 큰 높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이 높을 원늪 혹은 장자늪(일명, 장재늪)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3. 글을 마치며

청도천을 따라 흐르던 물은 신법에서 연상리 부근까지는 생태하천 복원공사의 일환으로 석축을 쌓거나 시멘트로 보를 만드는 공사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개발은 농업용수의 확보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홍수시 하천의 유속을 높일 뿐 평상시에 축산폐수나 농약잔유물의 자정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란한 공사장의 장비소리가 귀찮게 느껴질 뿐이다.

연상리에서 인교를 거쳐 하류까지는 걸으로는 자연스런 하천습지의 모양을 띠고 있으나 그 속에 많은 경작지가 남아 있어 하천의 역할도 습지의 역할도 어느 하나도 옹기 이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함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청도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4대강살리기사업(낙동강살리기 제17공구)이 진행되면서 합수지점에 수위 조절보를 만들어 놓고, 옛날 반월나루 부근에 형성되었던 부분습지를 활용하여 물길을 더 내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습지로 복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복원되는 약 2.5km에 달하는 하천습지는 '반월습지(半月濕地)'로 이름을 붙이기로 되었는데, 본래 남아있던 모래톱이나 수생식물과 물풀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포근함마저 느끼게 만들

정도다. 이 물길을 따라 오만가지 오물들을 정화시킨 맑고 깨끗한 물이 낙동강으로 힘차게 흘러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 26〉 청도천의 끝자락(이곳에서 4대강사업으로 복원되는 반월습지와 다시 연결된다)



〈그림 27〉 복원되는 반월습지의 끝부분 (낙동강 합수부)

참고문헌

- 密陽文化院(1987년), 密陽誌.
- 密陽文化院(1994년), 密陽地名攷.
- 密陽市(1999년), 密陽文化財總攬.